

제225회 통영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3. 6. 23.(금) 10:00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시정질문 답변자료

(전병일, 정광호, 배윤주 의원)



시정질문 답변자료

(전병일 의원)

● 통영시가 추진하는 KTX 역세권사업 추진상황? -	1
● 취임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예산의 규모?	4
● 천연가스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통영시 대응	12
● 신아SB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추진상황 -----	16
● 관광 중심도시 통영을 위한 각종 현안 공유 -----	19
● 경남도 / 중앙부처로부터 부시장 역량으로 확보한 예산/사업?	28
● 통영시 인사행정에 대한 입장 -----	33
● 통영시 발전을 위한 고언(수산과 관광 중심으로) ---	35
●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 사업 추진 경과 -----	40
●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 정책 -----	43
● 적십자병원 이전 관련 지원방향/파급성 -----	46
● 하절기 감염병 발병에 대한 대책 -----	54
● 통영시 분만 취약지역 해소 장기 대책 -----	56

시정질문 답변서

□ 제 목 : 통영시가 추진하는 KTX역세권사업
추진 상황?

□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 답변자 : 시장

□ 질문내용

○ 통영시가 추진하는 KTX 역세권사업 추진상황?

□ 답변내용

○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역세권과 배후도시를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생활 거점단지로 조성하고자, 용남·광도 일원에 약 300,000m² 구역 내 사업비 6,565억원을 투입하여 역세권 및 배후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 사업 시행은 우리시, LH, KR과 공동사업 시행을 통하여 기관별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 및 실현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통영역세권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반기에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세부내용 및 절차 이행 등 개발계획 수립을 논의중에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개발계획의 기초가 될 LH주관으로 『KTX 통영역세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25년까지는 행정절차이행을 거쳐 26년에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 27년에 실시계획인가 승인

및 고시가 끝나면, 사업 준공시점인 2030년에
성공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2. 취임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예산의 규모는?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① 취임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예산의 규모는?

답변내용

- 저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 후 시정의 비전과 정책 기조를 담은 시정 구호를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각종 예산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시 2022년도 최종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18%, 1,977억 원 증가한 1조 152억 원을 편성하여 역대 최초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 우리시 2022년도 최종 국도비 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87%, 885억 원 증가한 4,061억 원을 확보하여 최초로 4,000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였습니다.
- 특히,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중 국회심사단계에서, 38억 8,80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고, 이는 최근 4년간 최대 확보 성과입니다.
- 한편, 지난 5월 확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42%, 525억 원 증가한 8,7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예산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4%, 521억 원 증가한 3,697억 원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각 연도별 같은 시기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액 및 국도비 확보액 증감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지역현안 및 재난복구, 재난안전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경남도로부터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지역현안 사업 20억 원, 재난안전사업 46억 2,700만원, 시책사업 5억 6,700만원 등 총 22건 71억 9,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특히, 2022년에는 상반기 10억 7,000만원, 하반기 57억 4,000 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20억 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현안수요사업으로는 제6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사업 5억 원, 통영대교 시설물 보수 공사 5억 원, 통영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5억 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5억 원 등 총 4건,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재난안전수요사업으로는 안전취약계층 가구별 재난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5억 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 2억 원, 태풍 힌남노 항구복구사업 5억 원, 통영실내수영장 안전 보강공사 11억 5,000만 원, 북신동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확보사업 2억 5,000만 원, 공공전통시장 미세안개분무시스템 설치 4억 원, 도산일주도로(수월~동촌) 사면 정비공사 2억 원,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및 원격 계측정보시스템 구축 7억 8,700만 원,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 6억 4,000만 원 등 총 13건, 46억 2,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책수요사업으로는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 관리 우수 인센티브 4,000만 원, 공공자원데이터 개방활용 우수 인센티브 5,000만 원, 지방규제혁신 TF 우수 지자체 지원 3억 원, 인력재배치 실적 우수 지자체 지원 1억 5,000만 원, 지자체 혁신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700만 원 등 총 5건, 5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2022년 3분기 26억 원, 4분기 50억 600만 원, 2023년 1분기 25억 1,000만 원 등 총 32건, 101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확보액은 97억 4,86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내역을 살펴보면,

현안수요사업으로는 제62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사업 20억 원, 디피랑 연결보도교 설치 15억 원, 굴 꺾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 15억 원, 강구안 해상공연장 설치 15억 원, 북신공원 친수공간 조성 10억 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통영체육관 개보수 사업 10억 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시책수요 및 인센티브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 2,100만 원, 산불방지대책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5,000만 원, 2023년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1억 2,9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이렇듯 지난 1년간 저를 비롯한 우리 시 모든 공직자들이 일치단결하여 국도비 등 각종 이전 재원 확보 노력을 거듭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 지난 2023년 4월말 기준 누계 국세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 9천억 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더욱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한다면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렇듯 국내외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 육성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이전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② 통영시 총자산 대비 채무

□ 답변내용

- 다음으로 통영시 총자산 대비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채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모든 의무로서 지방채무를 포함한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에수보 증금, 일반미지급금 등을 말하며,
- 그 중 지방채무는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 채무부담행위액 중 이행책임액을 의미합니다.
- 우리시는 2016년 12월 말 지방채무가 260억 원이었으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원확보 노력 및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가용재원으로 2017년말 전액 상환하여 현재까지 지방채무는 없습니다.

- 2021년도 말 기준 우리시 부채는 전년대비 56억 원이 줄어든 808억 원으로 유동부채 125억 원, 기타비유동부채 683억 원입니다.
- 국·도비 집행잔액 71억 원, 유동성BTL 미지급금 50억 원 등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집행잔액과 단기예수보관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 장기BTL 미지급금 628억 원, 퇴직급여충당금 53억 원 등 기타비유동부채는 전년대비 4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관거 BTL 및 시립도서관 BTL 미지급금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 우리시 부채 808억 원 중 가장 큰 부채는 하수관거 BTL 652억 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 71억 원, 퇴직급여충당금 53억 원, 무전동 시립도서관 BTL 22억 원 순입니다.
BTL 부채는 상환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37%로 전년도 2.6%에 비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3. 천연가스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통영시 대응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 변 자 : 시장

질문내용

○ 천연가스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통영시 대응

답변내용

[천연가스발전소]

○ 통영천연가스발전사업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주)가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광도면 황리 1608번지 상 1,012MW급 발전기 1기와 20만kL급 LNG저장 탱크 1기를 갖춘 발전소를 건설하는 민자 발전사업입니다.

- 사업자는 우리 시로부터 2021. 10. 24. 발전소 건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2%로 2024. 06. 준공하여 7월부터 상업운전 예정입니다.
- 우리 시는 2021. 10월 지역발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업자와 상생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관내 27개 업체가 1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미 발주 조정공사는 관내 조정업체로 선정이 예상됩니다.
- 지역업체 계약, 지역주민 고용, 지역장비 및 자재 사용 등으로 매일 1,000여명의 인력이 공사에 투입되며 건설기간 약 600여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발전소 준공에 따라 100~150여명의 운영 인력이 상주하여 인구 유입효과와 매년 약 20여억 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력발전소]

- 우리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옥지도 일원 해상에 영동발전(주), 옥지풍력(주), 현대건설(주) 3개 발전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으며, 아이에스동서(주), 한국남동발전(주) 2개 발전사가 전기사업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전기사업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이 완전히 추진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전파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및 조업지 상실 등의 사유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출하는 만큼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의 동의 없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 그동안 우리 시 및 관계기관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수산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 남해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여 갈등예방과 해소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변화 등 지역주민, 어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및 협의회에서 합의 된 사항들의 이행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 또한 경남도에서는 민관협의회를 재편하여 발전 사업자와 어업인의 소통과 갈등 해소 창구 마련, 해상풍력 관련 정보공유 등을 위한 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4. 신아SB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추진상황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신아SB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추진상황

답변내용

○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2년 7월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과 관계기관·부서 협의후 지난 3월 2일 공동위원회 심의 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 4월에 공동위원회 조건부 의견을 반영한 조치 계획과 보완서류를 경남도에 제출하였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의제) 재협의 중에 있으며, 6월 중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 고시될 예정입니다.

- 연내 폐조선소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여 '24년부터 '25년까지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을 우선 조성하고 '26년부터 '29년까지 폐조선소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금년 8월까지 정화플랜트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인·허가를 완료하고, 9월부터 정화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5년 하반기 정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마중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영리스타트 플랫폼에는 지역민의 취·창업교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점포를 비롯한 창업공간에는 22개 업체가 입주·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거지 내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주민공동이용 시설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위탁 후 주민협의체와 민간 전문경영인을 통한 공간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말 소방도로 공사를 준공하였고, 현재는 어울림 공간, 지식공방 등

주민이용시설과 일터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도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초 두룡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과 상생협력상가를 준공하였고, 현재 달무리광장 조성공사를 추진 중이며, 윤이상 음악거리 조성사업은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 2개 지구 모두 주민거점공간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진행중에 있으며, 원도심 지역민대상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통영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취임이후 관광분야 관심도/추진업무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취임이후 관광분야 관심도/추진업무

답변내용

○ 2022. 7월 취임 이후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으로 시정구호를 정하고 2022년도 역점시책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관광도시 실현으로 정한 바 있듯이 관광활성화를 시정의 핵심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야간관광>

○ 그래서,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임 이후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야간관광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도시로 지난 해 9월 5일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올해 준공된 강구안을 중심으로 현재 강구안 야간 경관 개선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어 강구안 일대가 점, 선, 면으로 이어지는 야간경관과 글로벌 야간관광 콘텐츠가 마련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우리 통영시는 거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지, 남해안 대표 관광지를 넘어 호주 시드니,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야간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 <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
- 아울러, 섬마다 특색있는 관광요소 개발과 2027년 KTX 개통에 대비하여 통영시 장기 관광 발전을 위해 통영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오는 12월에 통영시의 장기적인 관광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섬 관광객 100만 달성>

-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 역마리나 및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 남부권의 관광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광역적으로 연계·개발 하여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대 관광특화사업으로 조성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섬마다 특색있는 관광요소 개발’ 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 완료 후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해양레저 및 섬 관광객 100만 달성을 위해 섬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지역 역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 및 마리나 비즈센터 조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통영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허브 조성사업〉

-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 국제해양관광 마리나 허브 조성사업은 도남항 마리나시설이 기 구축되어 해수부사업 반영이 어려워 해양관광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수부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3대 축제도시 선정〉

- 구 도심 권역 활성화와 야간경제 관광 구축을 위해 작년부터 통영한산대첩축제를 야간 축제로 전환 하였으며, 그 성과가 지난 6. 2.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3대 축제도시 선정일 것입니다.

〈한국관광학회, 한국관광공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아울러, 통영 관광의 장기적인 발전과 협력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학회와 유기적 관계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작년 연말에 한국관광학회 주관으로 통영 관광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야간관광 포럼을 우리 통영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지난 2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면담을 통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과 각종 사업을 통영시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성과로 지난 5월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한국관광공사 가봄 기자단 통영 취재, 오는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 신입사원 연수를 통영에서 가지며, 11월에는 대만(대만 국제여전)에서 야간관광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 마지막으로 관광사업은 민관이 같이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관광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광과를 비롯한 관광 분야 전 부서의 연계협력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관광 중심도시 통영을 위한 각종현안 공유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출향인사, 향토기업, 방치 부동산 기업)?

답변내용

○ 코로나 펜데믹 이후, 관광도시 통영의 명성을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레저와 문화, 관광,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남해안 거점 체류형 관광도시를 구축하는 통영시만의 차별되고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지난 5년간 코로나 영향 등으로 관광객 유입은 현저히 줄었고, 케이블카와 루지는 더 이상 특별한 관광시설이 아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 정부는 남해안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벨트로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23년 2월에는 통영에서 부·울·경과 전남 광역단체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구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형 칸쿤 조성 프로젝트』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지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경남도와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민간 투자 8천억원, 공공투자 2천억원을 합쳐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에 공모신청, 현장평가를 거쳐 24년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25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 본 사업은 “개발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의 민자 유치”가 핵심이고,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도로, 관광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이 수반됩니다.

- 현재, 우리시와 경남도는 관광인프라, 숙박시설 등에 민자 8,000억원 이상 유치를 목표로 국내 대기업을 포함 투자자들과 활발하게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하반기에 투자자들과 민자유치 협상을 마무리 하고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또한 지난 4월에는 경남개발공사와 신규 관광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 우리시 일원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한 관광단지개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KTX남부내륙철도 개통, 한산대첩교 조기건설,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등 개발계획을 발판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개발과 보존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잘 살려서 『약속의 땅 미래 100년 도시 통영』 건설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1. 경남도/ 중앙부처로부터 부시장
역량으로 확보한 예산/ 사업은?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부시장

질문내용

① **경남도/ 중앙부처로부터 부시장 역량으로 확보한 예산/사업은?**

답변내용

- 지난해 1월 통영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고향에서 근무하게 된 기쁨과 함께, 우리 시 미래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래서 지난해 2월 2023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2023년 주요 국고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면서, 각 소관 부처 의견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마련에 실국 과장님들과 함께 고심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 단계, 국회 단계를 거치면서 신규사업과 미반영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2023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부시장으로서 제가 우리 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저는 부임 이후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다소 침체해 있는 우리 통영시 관광 산업에 대한 활로를, 강구안 친수시설이라는 공간과 야간관광을 통해서 개척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물론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결코 아니지만, 앞으로 강구안 야간 경관 개선사업 등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문화 예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통영, 스마트 관광도시 통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내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신규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추진 및 국비 확보를 위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1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주요 사업 예정지인 통영항 및 한산도 용초, 추봉, 비진 일원에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과 문체부 관광 개발과장, 우리 도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 등이 방문하여 함께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으며, 제가 브리핑과 함께 사업반영 요청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현안 및 재난복구, 재난안전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특별 교부세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경남도로부터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노력하여
- 2022년의 경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역 현안사업 등 25건 68억 1,000만원을 확보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전년대비 20억원을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 경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2022년도에 97억 4,860만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특히 도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시설 개보수, 디피랑 연결보도교 개설 사업 등 우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경남도 등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확보에 일조하였으며,
- 2021년 11월 개통한 지방도 1021호선 산양 세포~삼거리 구간 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의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예산 5억 5,700만 원(도로 관리사업소 집행잔액 재배정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가뭄 피해 관련 통영 도서지역 긴급 급수 지원 사업 등 1,2차 가뭄대책비 도비 4억 9,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또한 올해 초 한파대비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및 방풍시설 설치사업 도비 3억 4,700만 원 등 도(道)와 우리 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2. 통영시 인사행정에 대한 입장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부시장

질문내용

○ 통영시 인사행정에 대한 입장은?

답변내용

○ 현재 우리시 행정조직은 4국 1단 2실 26개과로 구성된 시 본청과,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5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061명입니다.

○ 민선8기 출범 후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여 정원을 재배치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팀을 통합하는 등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의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비중이 줄어든 기능의 정원을 줄여 강화되는 기능으로 재배치하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업무 증가와 현안 사업 등으로 부서별 인력증원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는 예산의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공무원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우선 자체 조정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공무원 증원 수요는 더욱 보수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방조직·인력 운영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이제는 인력증원보다는 기구·인력운영의 효율화와 업무 숙련도 향상, 인력재배치를 통한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 앞으로도 행정여건 변화로 업무필요성이 감소된 인력, 유사·중복되거나 세분화되어 기능 간 통합이 필요한 인력, 위탁할 수 있는 사무 등을 꾸준히 발굴하여 정원재배치 등을 통해 낭비 없는 건전한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3. 통영시 발전에 대한 고언
(수산과 관광분야 중심으로)

질문의원 : 전 병 일 의원

답변자 : 부시장

질문내용

1) 통영시 발전에 대한 고언(관광, 수산분야)

답변내용

<수산업 분야>

-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수산자원 관리의 선진화, 양식산업의 규모화 및 첨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수산업이 생산 중심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산식품 개발과 유통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계가 인정한 청정해역 통영수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하여 전 세계인이 맛볼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K-브랜드 활용 등 수산물 판매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그러기 위해 우리시 수산업은 대한민국 수산 1번지에 걸 맞는 신 수산업육성, 수산물 생산 안전성 제고, 수산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 또한 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 어업인 육성 확대, 청년 어업인 정착과 후계 어업인 승계 지원정책강화, 차세대 우수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강화 등 미래 지향적인 수산 경쟁력 확보로 경제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분야>

- 우선적으로 우리 통영은 시장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 요트마리나 시설, 해상 케이블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2027년 KTX 개통에 대비한 숙박,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시는 예전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하였던 경험이 있고 여수, 목포 등 타 시군 또한 KTX 등 교통 여건 개선 시 관광객이 급증하였던 사례를 보았을 것입니다.
- 지금도 우리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은 교통과 숙박입니다. 시내 도로확장 및 주차장 신설 등으로 주차 교통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유희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대형숙박시설을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통영의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개최 시 전 세계 각지에서 인근 부산을 찾을 것이고, 그 관광객을 우리 시로 끌어 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 지난 3월에는 말레이시아 인플루언서 팸투어 5월에는 대만 인바운드 여행 관계자 팸투어, 6월에는 아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가 통영에서 진행된 바 있는데, 통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지를

보고 크게 감탄한 바 있으며, 통영의 전통문화 예술에 크게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일본 동경사무소와 협업하여 일본여행 관계자와 팸투어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 이렇듯 외국인들은 우리 통영의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 대상 팸투어, 해외 박람회 참가, 외국어 SNS개설, 외국어 안내서비스 개편,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통영의 아름다움과 즐길거리를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 구도심 및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 현재 추진 중인 강구안 일대를 점선면으로 연결하는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강구안 나이트 프린지, 강구안 다이닝, 모던 보이즈 페스타 등 야간 콘텐츠는 통영만의 특색을 잘 살려서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들은 통영의 전통 문화, 예술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도수군통제영, 제승당 등을 활용한

승전투어,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과 통영 출신 문화예술인을 활용한 문학 예술 투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통영의 자랑거리인 570여개의 섬 자원을 이용한 섬 투어, 요트 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해 해양 레저, 관광 시설 확충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통영은 더 이상 거처가는 관광지여서는 안됩니다. 체류형관광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통영시는 야간경관 개선과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 생활 관광, 위케이션 프로그램 진행 등 관계인구 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 지속 진행과 발굴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에도 적극 대응해나갔으면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1.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사업 추진경과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수산경제환경국장

질문내용

①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사업 추진 경과

답변내용

○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사업은 해양쓰레기 단순 처리인 전처리시설과 고온 열분해 시설을 접목 하여, 소각하는 해양쓰레기의 재활용 및 열분해로 해양폐기물의 자원화 기반구축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150억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예산으로 명정동 산4-18번지 일원에 2024년 까지 사무공간, 대기방지시설, 파분쇄기, 건조기, 페스티로폼 감용기, 열분해유 시설 등이 준공되면, 1일 15톤의 해양쓰레기 처리(폐부자, 펫트병, 폐그물, 통발 등)를 처리할 수 있고, 고온 열분해유(백등유)를 1일 9,146 ℓ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 드리자면,

- 2019. 4. : 해양수산부 전처리시설 수요조사 제출
- 2019. 6. :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공동 검토
- 2019. 8. : 기재부 협의 결과,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
- 2019.11. : 예정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심의
- 2020. 2. : 지방재정 투자 심사 의뢰, 사업부지 확보
- 2020. 8. :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착공
- 2020.10. :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 2020.12. : 해양자원 순환센터 사업부지 지반조사
- 2021. 5. : 연속식 고온 열분해유 실증 운영보고회 개최
- 2021. 7. :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
- 2021. 8. : 심의회 및 선정공고, 선정결과 검토보고서 작성
- 2021.11. : 실시설계 착공(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 2021.12. :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
- 2021.12. : 공유재산관리심의 변경의결 완료
- 2021.12. :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조건부) 자료 제출
- 2021.12. : 환경부 전처리시설 변경건의 및 사업승인
- 2022. 1. : 유화시설 민간제안사업 내용 공고
- 2022. 1. :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 2022. 3. :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재해 영향성 용역 준공
- 2022. 3. : 민간제안사업 협상대상자 지정
- 2022. 3. :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 완료
- 2022. 4. : 실시설계 준공(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 2022. 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시과)
- 2022. 5. : 해양자원 순환센터 등 실시계획인가 승인신청(도시과)
- 2022. 5. : 해양자원 순환센터 잔여부지 손실보상 협의(기재부)
- 2022. 6. : 해양자원 순환센터 토목발주
- 2022. 7.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3. 3. :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축 착공 허가
- 2023. 3. :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축공사 및 감리 발주
- 2023. 4. :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열분해 등) 승인(경남도)
- 2023. 4. : 해양자원 순환센터 소방, 정보통신공사 발주

○ 현재 30여건의 행정절차 완료와 토목공사는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구간 절토부 흙막이공사 중 연암노출로 암판정 결과 연암 수량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387백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2023. 7. 잔여공사(전기, 기계공사) 발주, 2023. 8. 민간제안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 2024. 2. 열분해 시설공사 착수, 2024. 12.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 정책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수산경제환경국장

질문내용

○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 정책

답변내용

○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남 에너지(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2004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공급관 181.8km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4월말 현재 10개 지역 4만 6천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보급률은 약 82.9%가 되겠습니다.

○ 하지만 우리시 관내 천연가스생산기지가 위치하여 2002년부터 상업운전하고 있으나 관내 산양읍, 도산면, 도서지역을 제외한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보급(59.1%)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 원 도심지역의 경우 좁은 골목내 지하 지장물로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급이 되었지만 미 공급 지역은 경남에너지(주)와 현장조사를 지속적 실시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가스 미 공급 주택지역에 대해서 국·도비보조 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통하여 공급을 확대하고자 올해에도 22개 구간, 3백 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도비 1억 8천만 원, 시비 9억 원 등 총 10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배관 매설량 증가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 도비 지원액은 1억8천만 원(16%, 2023년 기준)으로 시 재정 여건 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확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기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이 가시화 되면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를 병행하여 연장 설치하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1. 적십자병원 이전 관련 지원방향/과급성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보건소장

질문내용

○ 적십자병원 이전 관련 지원방향 및 과급성은?

(민간병원과 의료비 비교)

답변내용

○ 2020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통영적십자병원을 포함한 9개 공공 병원에 대한 신축 및 이전신축사업 추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 이후 2021년 7월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3년 1월 13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 용역 보고에 따르면 이전신축 병원은 통영·거제·고성 권역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응급의료 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감염병

질환 대응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등 정부 지정 필수의료포함, 300병상 17개 진료과목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33,000m²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시는 원도심 활성화 및 관내 의료기관의 균형 배치를 위하여 현 적십자병원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며, 현재 명정동 내 일부 부지에 대하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를 조성 후 현 통영적십자병원 건물 및 부지와 교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올해 안으로 이전신축 부지를 확정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추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건축 설계, 공사착공 등 이전신축을 위한 각종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한 협조로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초고령사회,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따라 의료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 하고 있으나, 현재 통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으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중인 응급실은 새통영병원 뿐이며, 저출산 심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지역내 산부인과 및 소아과 부족 등 의료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 향후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이 완공되면 응급환자 진료, 고위험 산모 분만, 감염병 전담진료 등 필수 의료 제공이 가능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완결적 의료여건 조성으로 타지역으로의 의료소비 유출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쇠퇴 및 노령화가 심각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료비 부분에 있어 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 으로서, 병원의 운영과 확장을 위한 경영 효율 성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에 비하여 수익창출에 대한 부담이 적어 환자분들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나 검사를 권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장점이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통영시 분만 취약지역 해소 장기 대책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통영시 분만취약지역 해소 장기 대책은?

답변내용

○ 우리지역은 2023년 보건복지부 C등급 분만 취약지로 현재 우리시 관내 분만산부인과는 통영 자모산부인과의원 1개소와 산후조리원은 통영 자모산후조리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선정>

○ 우리시 분만산부인과의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공모사업에 지난 2022년도에 신청한 결과 불채택 되었습디다만,

○ 지원사업의 절실한 필요로 「2023년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공모를 재신청하여 올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1차년도(6개월 기준) 2억 5천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 원(국비50%, 지방비50%)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개정〉

- 2023년 3월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산모의 출산비용을 경감하고 산후회복 건강증진을 위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초 저소득층에게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전체산모로 확대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부결로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관 등 출산 관련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추진>

-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관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을 경감하고 관내 산후조리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분만환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개정>

- 2023년 3월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산모의 출산비용을 경감하고 산후회복 건강증진을 위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초 저소득층에게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전체산모로 확대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부결로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관 등 출산 관련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추진>

-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관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을 경감하고 관내 산후조리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2. 하절기 감염병 발병에 대한 대책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보건소장

질문내용

○ 하절기 감염병 발병에 대한 대책은?(수영장 등 집단시설)

답변내용

○ 우리시는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시체계 운영 중이며,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감염병 (의사)환자 발생 시 신고 등 질병정보모니터망 8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5월부터 9월 말까지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감염병 집단 환자 발생 모니터링, 집단발생 인지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반 12명을 구성하여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하절기 오염된 물 속의 균에 의해 감염되는 레지오넬라증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건물, 노인복지시설, 목욕탕, 분수대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화장실, 샤워실 냉·온수를 채취하여 관내 19개소 대상으로 환경수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집단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 시설에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배부 및 손씻기 뷰박스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화조, 하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및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올해는 민원 맞춤형 ‘방역소독 통합센터’ 운영을 통하여 소독 요청 민원 발생 시 보건소 민원기동반 3개반 7명, 읍면동 지역책임반 1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신속한 방역 소독 서비스 제공을 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통영시 분만 취약지역 해소 장기 대책

질문의원 : 전병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통영시 분만취약지역 해소 장기 대책은?

답변내용

○ 우리지역은 2023년 보건복지부 C등급 분만 취약지로 현재 우리시 관내 분만산부인과는 통영 자모산부인과의원 1개소와 산후조리원은 통영 자모산후조리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선정>

○ 우리시 분만산부인과의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공모사업에 지난 2022년도에 신청한 결과 불채택 되었습디만,

○ 지원사업의 절실한 필요로 「2023년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 공모를 재신청하여 올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1차년도(6개월 기준) 2억 5천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운영비 5억 원(국비50%, 지방비50%)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개정>

- 2023년 3월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산모의 출산비용을 경감하고 산후회복 건강증진을 위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초 저소득층에게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전체산모로 확대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부결로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관 등 출산 관련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추진>

-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관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을 경감하고 관내 산후조리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외에도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분만환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개정>

- 2023년 3월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산모의 출산비용을 경감하고 산후회복 건강증진을 위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초 저소득층에게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전체산모로 확대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부결로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관 등 출산 관련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추진>

-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관내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을 경감하고 관내 산후조리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자료

(정광호 의원)

● 죽림 신도시 쏠림현상 관련 지역공동화현상 해소방안 -----	61
●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실적 -----	68
● QR코드 활용 등을 통한 민원 원스톱서비스 추진 현황 ----	71
● 우수관로를 통한 배란다 오수의 바다 유입 문제 및 해안변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	73
● 통영대교 보수공사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	78
● 한산대첩교 건립에 따른 미륵도 지역 교통량 분석 선행여부와 향후 원활할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은? -----	80
● 시장 취임 후 의회 및 각종 지역 단체(체육회 등)와의 갈등에 대한 봉합노력과 통합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는? -----	82
● 윤이상 선생의 이념화 및 논쟁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의 정치적 편가르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	85
● 구 통영교육청 부지 활용계획은? -----	88
●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봉평동 수리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 허가 여부 -----	92

시정질문 답변서

- 제 목 : 1. 죽림 신도시 쏠림현상 관련 지역공동화 해소 방안은 ?
- 질문의원 : 정광호 의원
- 답변자 : 시장
- 질문내용
 - 죽림 신도시 쏠림현상 관련 지역공동화 현상 해소방안은 ?
- 답변내용
 - 죽림 신도시 쏠림현상 관련 지역공동화 현상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3년 1차 신도심 무전동, 2014년 2차 신도심 죽림 일원이 조성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생활기반 시설 등 인프라가 무전동, 광도면으로 이전 되어 기존 원도심 및 인근지역은 지역활력 감소,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12년 대비 2022년 말 기준, 행정구역별 인구 변화율을 보면, 광도·용남면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봉평·도천·중앙·정량·명정 등 원도심 및 인근지역의 인구감소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 미륵권역에 통영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원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미륵권역(산양, 미수, 봉평, 도천)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보육 환경 조성사업으로 신축부지는 미수동입니다.
- 3층 규모의 건물에 공립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주민소통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육아 돌봄·보육시설 및 육아 소통 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젊은 부모들의 신도심 쏠림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다음은, 원도심 곳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 주요 추진사업은 봉평지구·정량지구·도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중앙지구(창골)·당동지구(판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천동 새미골 골목정원 조성사업 등입니다.
-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후주택정비 및 집수리, 안심통학로 CCTV 설치, 윤이상 음악거리 버스정류장 정비, 골목길 보행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 및 멘데마을에서는 사진전, 플리마켓, 체험 및 홍보부스 운영, 전시 및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인, 창업지원센터 조성, 어울림 공간 조성, 윤이상 음악거리 조성, 골목길 보행환경 조성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다음은,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인 해저터널을 디지털 영상아트 신기술과 접목하여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선도형 실감미디어 아트콘텐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 현재, 민간투자 사업으로 우선협상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올 3월에는 주민공청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쯤 2차 주민공청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통영의 아름다운 항을 주·야간 조망 할 수 있는 ‘통영항 오션뷰케이션’ 조성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통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해저터널 인근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다음은, ‘통영 강구안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강구안 일원에 낙화분수 조명 및 수중조명 설치, 상징조형물 설치, 강구안 일원 건축물을 활용한 입체적인 야간경관 조성 등이 주 사업내용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강구안 일원 숙박시설 간담회, MZ직원 소통간담회, 내부직원 및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강구안을 우리 시 관광 중심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운영으로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 또한, 최첨단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시장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봉평동 일원에 건립되는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의 기능은 수산물 위판·유통기능 집적화, 마케팅 및 물류 기능의 통합화, 문화·관광형 복합 수산시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아울러,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해양·문화·관광 섹션을 함께 조성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쇠퇴해 가는 도남권역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으로는, ‘통영 먹거리골목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남1번가 초정거리 및 도깨비거리 등 향남동 일원에 먹거리골목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는 통영의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민 및 상인에게는 구도심 상권을 되살려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 등 향남동 일대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 또한, 향남1번가는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통영 예술가들의 스토리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통영 근대역사 문화거리’로 만들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 및 공동화 현상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지난해 2월 관심지역에 포함되어 그 우려는 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추진으로 원도심 활력 회복에 전 공무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살고 싶은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2.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실적

질문의원 : 정광호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젊은층 인구 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실적

답변내용

- 기업의 고용 및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통한 젊은층 등 외부 인력의 유입을 위해 5개 사업, 1,626백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 고용노동부 공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우리시 기준 국비 1,107백만원, 도비 55백만원, 시비 196백만원, 총 1,358백만원을 투입하여 386명의 근로자 신규채용 지원을 하고 있으며,
-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도비 90백만원, 시비 10백만원, 총 100백만원의 예산으로 57명의 근로자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은

도비 43백만원, 시비 101백만원, 총 144백만원의 예산으로 40명의 근로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규고용 및 취업지원사업과 최근 수주증가로 HSG성동조선 등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안정국가산업단지는 2022년 7월 3,308명에서 2023년 5월 기준 4,662명으로 1,354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시는 대규모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약 18만8천평 규모의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가 72%의 공정률로 조성공사를 진행중입니다.
- 법송동원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기업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 과정 중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투자유치에 대한 대내외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나,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투자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조성예정인 안정일반산단, 덕포일반산단에 대하여도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좋은 기업이 우리시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제 목 : QR코드 활용 등을 통한 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 현황

□ 질문의원 : 정광호 의원

□ 답변자 : 시장

□ 질문내용

- 현장 시설물에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한 QR코드 부착하여 민원이 장애신고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추진 현황은?

□ 답변내용

- 우리시에는 가로등, 버스승강장, 심터 등 28,000여개의 현장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부서에서는 관리번호판 부착, 안내판 설치 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우리시는 QR코드를 활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등산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시설물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별개로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버스승강장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사물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로등, 전주 등에는 기초번호판 부착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현재 기준 1,241개의 사물주소와 143개의 기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향후 의원님이 제안하신 QR코드 활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물주소 부여사업 등과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우수관로를 통한 베란다 오수의 바다 유입
문제 처리방안

질문의원 : 정광호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우수관로를 통한 베란다 오수의 바다 유입 문제 처리방안

답변내용

- 신축아파트의 경우 세탁기실(우·오수관 분리)이 별도로 존재하여 우수관으로 세탁오수를 흘려 보내고 있지만, 노후(2000년 이전)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세탁기실이 없어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세탁오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수관으로 세탁오수가 유입되어 하천 및 바다로 흘러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간혹 아파트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우수관에서 거품 등이 흘러내린다는 민원이 간혹 제기되고 있지만, 집집마다 세탁기

위치, 베란다 내 우수관 분리현황 등을 직접 확인 및 방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베란다 내 세탁기 설치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배부, 읍면동장 회의자료 제출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연안해역 수질오염 방지 및 민원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 해안변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 답변내용

- 천혜의 자연경관과 자연적 조건으로 양식업과 어선 어업이 발달한 통영시 연간 해양쓰레기 양은 3,119톤 정도 발생하고, 그 중 84% 인 2,61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선박 사고를 일으키고 어획량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동안 통영시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 국·도·시비 16억원의 예산으로,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사업, 이상 다섯 개의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2023년 현재, 기간제 근로자 56명으로, 해안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추진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생활 속 작은 행동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어업인 스스로가 폐그물, 어구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도·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조업중 인양쓰레기 구매사업, 연안변 방치스티로폼 구매사업, 양식폐양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범시민 인식 개선을 목표로, 바다 자율정화 공동협력(MOU) 체결, 해양쓰레기 저감 어업인 교육 실시, 반려 해변 확산을 위한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 바다를 스스로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민·관·단체와 정기적인 바다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편, 신규 사업인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전문 교육기관의 맞춤형 해양환경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 환경부 재정사업인 150억원의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과 유화시설인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해안면 해양쓰레기의 수거, 운반, 재활용까지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구축 완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통영의 바다는 도시성장을 추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은 필수 사항이라 생각하며,
- 해양쓰레기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5. 통영대교 보수공사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질문의원 : 정광호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통영대교 보수공사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답변내용

- 통영대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제1종시설물로, 1998년 준공 후 약 25년 경과된 교량입니다.
- 2021년 12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후 안전 등급 결과는 A~E등급 중 “C등급(보통)”으로 주요부재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부재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2015~2016년도 S1, S10 2경관 및 교좌장치 147EA를 14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으며,
- 또한 2022년 약 1.7억 원으로 아치 구간을 제외한

전체 경간 연결부 볼트 및 후타재 균열 등 내구성과 밀접관계인 구간에 대해 우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 아치구간을 포함하여 전체 12경간(S1, S10 2경간 제외)에 대한 보수비(전체 도장 포함)가 90여억 원 정도 필요하며,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본 통영대교는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리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한산대첩교 건립에 따른 미륵도 지역
교통량 분석 선행여부와 향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은?

질문의원 : 정광호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한산대첩교 건립에 따른 미륵도 지역 교통량 분석 선행여부와
향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은?

답변내용

- 23년 5월 완료한 『충무교 병목구간 교통소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충무교 인근 지역의
교통량 조사를 분석한 결과 충무교 인근의 교통량은
일일 20,953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시설 노후 및 도로폭 협소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충무교를 4차선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국토부에 도로 등급조정 수요
조사를 제출하였습니다.
- 24년 6월경 국가 계획이 진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미륵도 지역의 교통량 조사, 주변 노선계획 및 개발

계획 등을 반영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산대첩교 조기건설과 연계하여 우리시는 충무교 4차선 확장공사,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도로건설 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미륵도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또한, 체육회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단체에 그대로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처리를 하고, 집행정산에 대한 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종목단체로 변경하였으며, 종목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적합여부를 검토 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종목단체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집행 기준과 정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등 체계가 점차 잡혀가고 있습니다.
- 보조금을 종목단체로 직접 교부하는 것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정산 또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지 결코 불협화음은 아닙니다.
- 시와 체육회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집행을 통해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유소년 FC U15팀을 지난해까지 통영시 체육회에서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 김00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한 1종 시합을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올해 팀 등록 불가라는 제재 처분을 받아 선수들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 통영시에서 직접 팀을 관리 하면서 적극적인 지도자를 공개채용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문제점을 수습해 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축구협회도 U12, U15, U18 유소년 축구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흩어졌던 선수들을 소집하고, 감독과 학부모와 시와 협회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목 : 8. 윤이상 선생 이념화 및 논쟁 문화예술 평가르기 입장

질문의원 : 정광호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8. 윤이상 선생 이념화 및 논쟁 문화예술 평가르기 입장

답변내용

- 도천지구 도시재생 음악마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 개최된 도천음악마을축제는 「도천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라는 주민 주도의 행사로서,

- 축제당일인 10월 29일은 행사장인 윤이상기념 공원에 모 단체의 집회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고, 행사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 나간 주민들과 시 직원들은 집회 현수막과 기념관 표지석에 흰 천이 씌워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주민협의체에서는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현수막 등에 대한 이동철거 및 집회 자제를 요청하였고, 이후 현수막은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되었으나, 표지석 가림막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 모 단체의 집회행위가 주민 주도행사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오해가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안도현 시인 문학특강 취소 건은
- 2023년 박경리문학축전 부대행사로, 행사의 세부 계획 수립부터 모든 일정 조정, 홍보, 섭외 등을 문학축전 행사의 주관 단체인 통영문인협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 이번 문학특강은 행사 며칠 전 모 지역언론사에서 평산책방과 안도현 시인과의 관계 및 시인의 평소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문화예술과 담당팀에서 상기 내용을 통영문인협회에 전달하였고, 통영문인협회의 긴급회의를 통해 문학특강 취소를 결정한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치적 편 가르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 우리시는 모든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관 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의 전반적인 의견을 존중하며, 행사 추진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9. 구 통영교육청 부지 활용계획은?

질문의원 : 정광호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구 통영교육청 부지 활용계획은?

답변내용

○ 통영교육지원청 구청사 현황

통영교육지원청 구청사는 도 교육감 소유로서, 활용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적절치 않으며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못하겠지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1976년 건축된 건물로써, 2006년 청사 폐지되었으며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활용방안에 대한 우리 시 입장

향후 10년 내, 공설운동장 및 충무실내체육관 부지에 시청사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통영시

계획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이 아파트 및 학교 밀집 지역인 점, 교육청 도서관으로 통영도서관이 있으나 구도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과 문화도시로서의 통영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품격에 걸맞는 적정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의 협의 및 추진 사항

그간 수차례에 걸쳐 박종훈 도 교육감과 김경숙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공식, 비공식 협의를 가지며 구청사에 구 도심 지역주민들의 바람인 도서관 건립을 제안한 결과,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5일, 박종훈 교육감 통영방문 시, 김미옥 의장님과 김태규 도의원을 비롯, 많은 분들이 구청사 방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도서관 등 건립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도 조속한 철거와 함께 임기내 반드시 아이들을 위한 새 건물의 준공식을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통영도서관 폐지 우려에 대한 입장

교육지원청 구청사에 도서관 건립 시, 일각에서

통영도서관 폐쇄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교육청에서도 통영도서관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확정된 바 없으며, 우리 시 역시, 새로운 도서관이 건립되더라도 기존의 통영도서관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가지며 미륵도 시민을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숙 교육장과 충분히 통화를 했으며, 지난 5월 26일, 시장실에서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과, 통영도서관 관장을 만나, 통영도서관을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갈 것입니다.

- 가칭 ‘통영 지혜의 바다’ 건립의 기대효과 등
우리 시민의 수준에 걸맞는 번듯한 도서관 건립은 구 도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시민에게는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 고취와 함께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미래를 꿈꾸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꿈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칭 ‘통영 지혜의 바다’ 도서관 건립은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조성을 위한 교육분야 에서의

큰 주춧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시는 도
교육청, 통영교육지원청과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 추진상황 및 봉평동 수리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여부?

질문의원 : 정광호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봉평동 수리조선소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여부?

답변내용

- 대한민국 최고의 수산도시 통영의 이미지에 걸맞은 수산물 위판장 집적화, 관광·체험형 복합 수산시장, 통합물류센터 등을 구축하는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를 조선소 부지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 선행사업으로 페인트 분진 등 환경피해로 장기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봉평동 일원 수리조선소를 이전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건립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현재는 『봉평지역 수리조선소 이전 구상용역』을 통해 봉평동 수리 조선소 실태조사와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 이전 최적지 선정, 이주조성 규모, 이주비용 등을 산출하여 연내에 환경피해 ZERO 「친환경 소형 어선수리·개조단지 조성」 구상과 제4차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한 후에, 정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 24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봉평수리조선소 이전과 친환경 소형수리어선단지 조성을 동시에 26년까지 완료한 후에 27년에 최첨단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봉평동 수리조선소 인근 해역은 지방관리 무역항 구역으로 경남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는 최첨단 현대식 유통센터 건립과 수리조선소 이전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리조선소 선가대의 공유수면 점·사용 종료 시, 허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봉평동 수리조선소의 이전부지 조성 공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조정하여 해당 조선소의 어선 수리 및 검사 기능이 유지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자료

(배운주 의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	96
●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소통에 대해 -----	101
●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	104
●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구성에 대해 -----	111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질문의원 : 배운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1)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市的 강력한 입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통영시장의 입장은?

답변내용

- 최근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점 오염수 현장 시찰단이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 수집한 각종 자료를 심층 분석중에 있고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오염수가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면밀히 검증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 우리시는 경남도, 정부와 대응을 같이하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질문내용

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통영시 수산업이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한 우리시의 단계별 대책은 있는지?

□ 답변내용

○ 그간 코로나19 장기 상황과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수산업 또한 판매부진 등 소비둔화로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분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어 통영시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현재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방식약청 통영식품 검사소에서 방사능 오염여부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생산단계부터 유통 전 단계, 유통단계, 수입수산물 통관 전 단계 등 관계기관에서 촘촘한 방사능 검사진행 및 그 결과가 공개되고 있으며,
- 통영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근해통발수협에 이동식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더욱 꼼꼼한 방사능 검사 진행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내외 행사를 개최하여 통영시 수산물의 안전성 인식 제고를 위함은 물론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매주 금요일 제공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안내 메일링 서비스 제도 시행을 각 수협단체를 비롯하여 읍면동을 통한 전 시민 대상으로 홍보, 시 홈페이지에 방사능 검사 결과 팝업창 게시 등 신속한 정보 제공,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짧게는 2년 길게는 4~5년 뒤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시 우리시에서는 경남도와 정부에서 국제해양재판소 등과 긴밀한 협조로 일본에 대해 피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피해어민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질문내용

- 3) 통영시의회가 지난 3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을 채택 하였는데 이에 대한 통영시장의 입장은?

□ 답변내용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할 경우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나
- 우리시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 등으로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남도 및 정부에 피해지원 방안 마련은 물론 특별법 제정을 건의(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2.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소통에 대해

질문의원 : 배윤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① 통영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작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도 도입되었습니다.

○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 하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 완전한 인사권 독립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수가 집행부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적어 합리적인 승진체계 구축이 어렵고, 이로 인해 우수인재가 근무를 기피하여 인사 정체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기관별 안정적인 인사 운영,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상호간 연계·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문내용

- ② 통영시가 2022.12.27. 공문 발송한 「통영시-통영시의회 인사운영 업무 협약 종료 통보(재통보)」 이후 현재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인사운영 업무 협약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 답변내용

- 2022년 12월 13일과 27일 두차례 공문 발송과 재발송 이후 현재는 협약서 체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인사운영되고 있어, 기존 합의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문의원 : 배윤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1.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답변내용

- 이장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사항>

[제목: 마을 이장 선출제도의 문제점...(국민방송/ '21.8.13.)

- ▶ 마을에서 알아서 뽑은 사람을 군에서는 그냥 임명만 해주는 이장에 대한 규제권한이 전혀 없다보니 이장이 잘못해도 마을 주민의 불신임이 없는 한, 이를 제어할 방도가 없다.
- ▶ 일부 사람들만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칫 마을을 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수 있다.

시정질문 답변서

<언론보도 사항>

[제목: 이장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허점(열린정책뉴스/ '21.2.10.)

- ▶ 일부 마을의 경우 씨족사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장 선출
- ▶ 이장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당국의 관리가 요구된다.

[제목: '소통령' 돼버린 마을 이장...(천지일보/ '22.6.18.)

- ▶ 군청서 공장 설립해도 마을이 민원 넣으면 사업 중단. 민원 취하로 '돈 요구' 비일비재
- ▶ 마을 기금부터 이장 개인 돈까지. “인허가보다 민원이 먼저인 나라”

[제목: 이장 임기 3년, 1회에 한해 연임(열린순창/ '23.3.8.)

- ▶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 계속 연임
- ▶ 이장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는 마을에서는 막중한 업무 탓에 이장을 서로 양보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이장이 월권을 행사하거나 마을 이권에 개입해 이득을 취하려는 마을에서는 서로 맞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물론 우리 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 시 안에서도 마을의 재산이나 이권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 간 분열이 일어나고 전직 이장과 현직 이장이 서로 고발하는 사례,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등 불미스런 사례가 있습니다.

- 마을에서의 이장 선출과정에서 1인 추대의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참여하게 대립되는 선거과정이 있는 경우 그 과정이 정당하고 투명한가, 그리고 마을 주민 간 갈등과 같은 이장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자의든 타의든 이장직의 과도한 장기 수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민중이었고,
- 같은 이장이지만 자연마을은 추천방식, 아파트는 공개모집 등 임명방식이 달라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으며, 동 지역 통장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내용이 현행 규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질문내용

2. 규칙 개정을 보류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 먼저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월 17일 규칙개정을 지시하고
 - 3월 2일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들었음.
 - 3월 27일, 이장 임명 방법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 4월 4일 입법예고를 한 이후,
 - 4월 13일 이통장협의회 정기회의 시 입법예고 사항을 알리고
 - 4월 18일 7개 읍면 이장단장과 면담을 했으며,
 - 그 후로도 면단위 이장회의 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4월 24일 이장단 및 마을주민의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였으며,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공개모집 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경우 마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위원들의 인선 한계와 그로 인한 마을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 기타 반대사유인 실거주자 문제는 자구 수정·보완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마을 이장은 관할구역에서 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면서, 마을을 대표하여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 마을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 행정시책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 아울러, 민방위대장,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후 확인과 같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장의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마을자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마을자치규약’에 따른 마을재산 관리와 같은 이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반대이유가 수궁이 되어 더 좋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일단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내용

3. 규칙 개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 답변내용

-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행정과 마을과의 원만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마을추천자를 우선 임명하고 있습니다.
- 이·통장 임명규칙을 보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나, 경기도 지역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고, 전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도 보이는 등 타 지자체와 많이 차별화된 규칙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새로운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겠다” 라고는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렵고, 좀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결론지을 것이고, 남해군에서 추진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배포 정책도 자연마을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예상)질문

-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법예고를 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는지?

□ 답변내용

-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처분’ 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등의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고,
- ‘처분’ 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의 경우에는 「공청회」 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물론, 행정상 입법예고 전에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입법예고는 ‘처분’ 으로 보기 어렵고, 입법예고 또한 의견수렴의 과정이므로 공청회 절차는 생략하고 이장단과의 면담, 이장회의 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제 목 : 4.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구성에 대해

질문의원 : 배윤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내용

- ①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 및 의견수렴 이행 여부

답변내용

- 우리시는 해양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나 지역관광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해저터널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하여 케이블카, 루지, 디피랑을 잇는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 원도심 활성화와 밤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민선7기에 「2019년 해저터널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해저

터널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 등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저터널 방문 불만족이 71.5%로, 해저터널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낮아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2020년 6월에 도천, 미수, 봉평동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저터널 리모델링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요, 추진경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의견청취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질문내용

- ② 사업추진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해저터널 안전성 및 시민 통행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해저터널 안전성)

- 통영해저터널은 1932년에 건설되어 90여년이 경과된 구조물로, 2011년 해저터널 정밀점검 용역 결과 종합평가 C등급을 받았으며, 2018년 경상남도 고시 제2018-239호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되어, 2018년부터 주기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앞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여 보수·보강 방안 마련과 화재, 침수 등 재난에 대비할 방재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시민통행제한)

- 공사가 착공되면 시민의 통행 제한이 불가피 합니다. 지금처럼 24시간 원하는 시기에 통행을 하기 위해서 도천동과 미수동을 오가는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콜개념의 무료 순환버스 운영을
민선 7기때 부터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질문내용

- ③ 현 사업단계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있는지?

□ 답변내용

- 올해 3월 22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해저 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민자사업」 공청회 개최 시 보존과 개발의견이 있었습디다만, 이후에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할 계획입니다.